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③	①	④	②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①	①	③	③	②	①	②

해설

- 신라촌락문서(민정문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있지만 의외로 정답을 찾기 쉽다. 인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는 점과 내시령답, 연수유전답 등 대상에 따라 토지 지급을 달리하였다는 점, 촌락의 크기 및 가축, 유실수의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촌주는 중앙에서 과전되는 관료가 아니라 지방 토착 유력자이다.
- ‘삼강행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15세기 세종 대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문제임을 파악해야 한다. 세종 대에 최윤덕, 김종서가 각각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한반도 국경선을 형성하였다. ② ③ 성종대의 역사적 사실, ④ 인조 대에 실시된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 552년 백제 성왕이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과전 불교를 전했다. 백제는 성왕 대에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① 개로왕, ② 근초고왕, ④ 침류왕에 대한 설명이다.
- ‘원종’, ‘도병마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13세기 고려 원종 대에 실시한 토지제도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몽골군의 장기적인 침입으로 인해 원종 대에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가 녹과전이다.
- ‘대가’, ‘부경’을 통해 초기 고구려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②번 선택지가 생소한 내용이지만 나머지 선택지를 통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③ 돌무지무덤은 고구려의 초기 무덤양식이다. ④ 서옥제(테릴사위제)가 고구려에 존재하였던 혼인 풍습이다. ①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 황룡사에 세운 탑에 관한 내용이므로 황룡사 9층 목탑에 관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 황룡사 9층 목탑은 643년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건립되었다. ① 신라 하대부터 제작된 승탑에 대한 설명이다. ②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③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이 대표적이다.
-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옹립된 왕은 현종이다. 고려시대 정치의 흐름과 제도 개편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 고려시대 때 속군에 감무를 파견한 시기는 예종 때이다.
-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승려는 의천이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아들이며 천태교학을 연구하였다. ① 보우, ② 지눌, ④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 발해의 통치 체제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찾는 간단한 문제이다. 발해는 정당성 아래에 있는 6부가 정책을 집행하였다. ① ③ ④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 김춘추, 김주원, 김경신은 진골 귀족이다. 신라 골품제에 따르면 진골 출신은 중앙 관부와 지방행정 조직의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① 신라 1~5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② 신라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고려시대 귀족에 대한 설명이다.
- 어제연이 미군에 항전했던 전투는 1871년 강화도에서 일어난 신미양요를 뜻한다. 흥선대원군은 서구 열강의 통상 수교 요구에 거부한다는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① 1880년대의 영남만민소 사건, ③ 남연군묘 도굴사건은 신미양요 이전인 1868년에 일어났다. ④ 1866년 프랑스군과 전투를 치른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다.
- 제시문은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의 3대 강령이다. 빈출지문이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1929년 신간회는 광주에서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① 조선 물산 장려회는 1920년에 조직되었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하였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는 1923~1924년 사이 전라남도의 암태도에서 소작인들이 주도하였다.
- 해방 직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회의가 개최된 시기와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헛갈리기 쉬운 문제이다. 1943년 루스벨트, 처치르, 장제스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 선언은 카이로 선언이다. ① 트루먼 독트린은 해방 이후 1947년 미 대통령 트루먼이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약속한 선언이다. ③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개최되었으며 카이로 회담 때 결의한 한반도 독립을 재확인한 선언이라는 의의가 있다. ④ 알타 협정은 1945년 2월 소련군의 참전과 미·소련군의 한반도 주둔을 제안한 협정이다.

- 제1차, 제2차 경제개발은 제3공화국 시기에 해당되는 1962~1971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 때 정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었다. ② ③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이며, ④ 연간 수출 총액 100억 달러 돌파는 1977년 제4공화국 시기의 일이다.
- 현존하는 의례가 임진왜란 이후 제작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답을 헛갈리기 쉬운 문제이다. 조선 초기부터 의례가 제작되었으나 전기에 제작된 의례의 대부분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 일단 정답은 3번이지만 2번 선택지가 문과 전체 비율인지, 식년시 한정인지에 따라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③ 영·정조 대에 통치체제가 안정되어 인구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 국권피탈기의 연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연표에서 러·일 전쟁은 1904년, 고종의 강제 퇴위는 1907년, 대동단결 선언 발표는 1917년의 일이다. ③ 1911년 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정답이다. ① 1898년, ② 1900년, ④ 1905년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 ㄴ : 정조는 문제반정을 일으켜 순정고문(醇正古文)을 장려하는 등 문체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ㄷ : 호락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노론 내부에서 일어난 사상 논쟁이다.
- 밀줄 친 단청은 의열단이다. 1921년 의열단원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② 1932년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적전을 벌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③ 한국 독립당은 1930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결성하였다. ④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청 임시정부 시기에 조직되었다.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시기와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ㄱ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년 9월) - ㄷ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년 12월) - ㄴ :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채택(1994년) - ㄹ : 금광산 관광 사업 실시(1998년)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전반적인 난이도는 다소 쉬운 편이었다. 제시된 사료들은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사료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를 찾기도 쉬웠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했다면 95점~100점까지 노력할 만한 시험이었다.

시대적으로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가 출제되어 전형적인 시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이점으로 전근대사 영역은 고대사에서 5문제가 출제되어 그동안의 출제 경향과 달리 조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근현대사 영역에서 현대사가 3문제 출제되어 현대사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늘어났다. 2018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정 시대에 치중하기보다 균형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분류사적으로는 정치 9문제, 경제 3문제, 사회 2문제, 문화 영역에서 6문제씩 출제되어 특별한 점은 없다. 가장 출제비율이 높은 정치사를 학습할 때 전근대사 영역은 시기별로 어떤 주제가 자주 출제되는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고대사에서 주요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문제, 고려·조선시대에서 통치체제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는 그동안 자주 출제되었고 이번 추가채용 시험에서도 어김없이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정책, 국권피탈과정에서 있었던 사실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연도를 알아야 정답을 빨리 찾고 시간을 절약하여 다음 과목을 준비할 수 있다.

한국사 시험에서 시대사, 분류사적으로 어떤 유형이 주로 출제되는지 이해하면 수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제된 사료를 읽으면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출제된 사료는 추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에서도 사료에서 키워드를 찾는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되었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시대순서를 연결하는 문제 유형의 출제빈도는 줄어들고 있다.

오답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14, 15, 16번을 들 수 있다. 14번 경제개발 계획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시기를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15번 문제는 ‘가례도감의궤’라는 용어 때문에 조선시대 의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떠올리지 못하고 당황하기 쉽다. 16번 문제는 2번 선택지 ‘영·정조 대에 들어서 문과합격자 중 평

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설명 때문인데, 별시문과에서 평안도 출신자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3번과 더불어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 밖의 문제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발휘하여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다.